

- 여는 글 1면
- 수다쟁이 책마카가 들려주는 책 마 이야기 2·3면
- 사서 선생님 눈에 들어온 책 3면

- 만나고 싶었어요 4면
- 엄마표 요리나라 이야기 5면
- 삼도리 이야기 5면

- 우리 동네 옛 이야기 5면
-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6·7면
- 내가 만드는 그림책 8면

- 도서관에 놀러와 8면  
(도서관의 여름 이야기, 도서관의 가을 이야기)

장유어린이신문 3호

# 포플 꼭짓

가을입니다.

지루한 여름을 어떻게 나섰나요?

도서관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동안 친구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더랬죠.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가족 동극도 함께 봤었구요.

『브라보 내 인생』이라는 책의 원화도 감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 내내 가족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던

“한여름밤의 그림책 SHOW”에서 알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베이징 올림픽 을 기념하며

새로운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는 독서교실 수업도 재미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여름 이야기를 지난 가을 이야기로,

또 다음엔 겨울 이야기, 새 봄 이야기로 계속요.

어때요, 친구들도 함께 만들어 보지 않을까요?

도서관은 늘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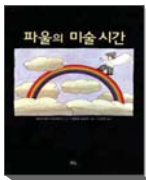




## 수다쟁이 책마녀가 들려주는 책나라 이야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니 여기저기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너희들은 괜찮니? 한여름엔 찜통의 만두처럼 푹푹 찜뚱해서 열구리 살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벌써 가을이야. 내 마술보다 더 신기해. 여하튼 더위도 물러가고  
이 신선한 날씨에 어떤 장난을 쳐볼까나.  
쉿! 이번 장난은 금사한 미술관에서 저지려보는 게 어때?  
자 준비됐니? 출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싫고 힘든 친구도 있지.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당근!  
이 책마녀도 음치에 몸치에 그림치거든. 난 지렁이 기어가는 거나 졸라맨 밖에 못 그려. 혹시 친구들이 내 그림 보고 웃기라도 하면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아무튼, 이번 여행은 그림과 관련된 책 여행을 떠나 볼까 해. 준비됐지?



### 1. 『파울의 미술시간』, 엘리자베트 보르헤르스 글, 빌헬름 솔로테 그림, 김경연 옮김, 풀빛

파울은 학교에 지각을 했어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지. 그리고 1교사가 미술이야. 흰 종이를 주곤 창밖 풍경을 그려. 파울은 그림 그리기 싫어. 파울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 하얀 종이바 비행기 모양으로 접혀서 날아오네. 파울은 미술시간을 무시히 마칠 수 있을까? 엉뚱한 상상하느라 선생님께 또 야단맞지 않을까? 내가 파울이라면 아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선생님 얼굴을 사자처럼 그려버릴 텐데.



### 2. 『쥐돌이는 화가』, 이호백 글·그림, 비룡소

쥐돌이는 엄마 따라 그림 전시회에 갔어. 엄마와 화가인 엄마 친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그림을 봤어. 이상한 그림 중에 꼭 자기가 한 낙서 같은 그림이 있어. 그림에 딱 맞는 옛이야기도 생각이 났어. 집에 돌아가면서 쥐돌이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쥐돌이가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희들은 아냐?



### 3. 『점』, 피터 레이놀즈 글·그림, 김지호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베틀도 그림 그리는 게 싫어. 선생님은 아무 것도 그리지 않은 베틀의 흰 색 도화지를 보고 북극곰을 그렸다고 물었지. 베틀은 더 화가났어. 선생님이 자기 놀린다고 생각했거든. 선생님은 베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어. 화가난 베틀은 도화지에 연필을 내리 꽂아 점 찍었어. 이럼 혼나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은 베틀의 점을 자서히 바라본 뒤 아주 근사한 금빛 액자에 담아 걸어 주시는 거야. 이때부터 베틀은 더 멋진 점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았지. 대단한 베틀과 특별한 선생님이 만난 것 같지.



### 4. 『느끼는 대로』, 피터 레이놀즈 글·그림, 엄혜숙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점을 읽었다면 바로 이 책도 읽어줘야 해. 점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게 된 베틀을 부러워 하던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 이름은 레이먼. 레이먼은 베틀과 달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 그래서 늘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형이 레이먼의 그림을 보고 비웃었어. 그 다음부터 레이먼은 똑같이 그려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아 속상했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화나고 부아가 치미는데 여동생 머리숱까지 구겨버린 그림을 들고 도망치잖아. 동생을 쫓아 들어간 방에 레이먼이 구겨서 버린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거야.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여하튼 이기특한 여동생 덕분에 레이먼이 다시 그림을 시작할 것 같구나. 확인은 너희들이 해.

그림 때문에 속상하고 기쁘고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았어. 그림이 이렇게 사람 감정을 묘하게 바꾸는 걸 보면 나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해. 마녀 행정부에 신고 안하고 무척가르 마술을 부리면 마녀 감옥행인 걸 모르나. 여하튼 수상한 냄새가 나. 즉각 조사해봐야겠어. 조용히 따라 와.







5.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보자!』, 김기정 글, 김윤주 그림. 다림

그림이란 녀석이 쉽게 자기안으로 들어오라고 길을 만들어 주겠니?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내가 이 안내인을 고용한 거야 바로 책이지. 제목부터가 딱 맞잖아. 주인공 공은 보미. 미술 선생님이 깊은 산 속의 절을 그리라고 했는데 보미는 진짜 절을 한 번도 못 봤대. 걱정이겠지? 보미는 산길을 따라 절에 올라가다가 비 때문에 끝까지 못 간 기억을 떠올리고 안개 낀 산길만 그렸어. 그런데 선생님이 보미 그림을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산길 위에 절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래. 이렇게 그림 속의 이야기에 다가가는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그림 안내서야.



6.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코닉스버그 글, 헛살과 나무꾼 옮김. 사계절

모나리자 그림은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림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 빈치란 사람은 아니냐? 화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하고 르네상스라는 아주 먼 옛날에 비행기 비슷한 걸 그렸다고 해 여하튼 보통이 아닌 인물이지. 다빈치에게 살리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웃기는 인물이야. 거짓말 잘치고 도둑질도 예사로 하는 뺑쟁이였다는구나. 그런데 다빈치는 늘 살리를 곁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은 살리와 다빈치의 관계 그 속에서 탄생한 명화 “모나리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7.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라헬 판 코에이 글, 박종대 옮김. 사계절

스페인의 유명한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의 작품 중에 “시녀들”이란 그림을 찾아봐! 이 그림을 보고 이 책을 읽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 주인공 바르톨로메는 굶주려 등에 볼록한 혹이 있는 장애인이지. 그런데 중세라는 시대는 장애인에게 너무 불행한 시기였어. 아주 심한 차별과 모욕을 받아야 했거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바르톨로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그리고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훌륭했던 벨라스케스를 만날 수 있는 책이야. 또 그의 작품 “시녀들”은 다른 명화들보다 더 특별한 그림으로 기억될 거야.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나, 후안 데 파레하』라는 책도 같이 읽어 보면 좋겠어.



그림 그리기에 관련된 그림책에서 출발해 그림 속 이야기를 읽어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안내서. 유명한 명화들을 소재로 한 두꺼운 동화책까지 두루두루 여행을 다녀 봤어. 수다쟁이 책마녀 따라 다니느라 귀도 따갑고 머리도 빙빙 돌지? 하지만 이번 여행을 마치며 이 책마녀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 그건 바로 그림을 좋아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직접 그리며 즐기기. 바라보며 즐기기. 그림 속 이야기 상상하며 감상하기. 그림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기. 이렇게 다양하게 즐긴다면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미술이 쉽고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 화가가 될 수도 있고 미술 평론가나 전시 기획자도 되겠지. 어쩌면 작가가 되어 있을 수 있겠네. 역시 책마녀 짐작대로 그림은 요술쟁이였어. 요녀석을 끄꿍 묶어 마녀 행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아 귀찮아.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래? 난 이만. 씩----



사서 선생님 눈에 들어온 책

“아이에게 책을 권하기보다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길”

· 『독서몰입법』 조미아 글, 랜덤하우스코리아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라디오 방송에서다. 국문과 교수가 매주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청취자들에게 소개하는 코너이다. 그날도 무심코 듣고 있는데 『독서몰입법』이란 책을 소개하며, 책제목이 마음에 안 들지만 대체로 이런 제목은 출판사에서 강제로 만든다고 한다. 독서교육이 중요한 지금 시기에 부모님들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하셨다.

간략하게 저자부터 소개하려고 한다. 책마리에 저자인 조미아 선생님은 ‘대학도서관을 거쳐 공공도서관 사서로 10년 동안 근무하며 13개의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하였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진흥위원,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강의 등 다양한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등의 긴 소개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현장과 학문 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산증인인 것이다. 자 이제 책의 많은 내용 중 “꽃잎의 독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소개해보겠다.

첫째, “아이들은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하지만 왜 읽어야 하는가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등의 다양한 답이 나온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아이들은 책을 통해 언어능력이 발달되며, 사용할 수 있는 어휘수가 증가하고, 생각하는 활동이 발달함에 따라 책 안에 담긴 문장의 뜻도 이해하게 된다. 또 책읽기는 아동의 두뇌 발달을 고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두뇌 기능의 발달은 보통 12세 이전에 완성되며, 그 이후에는 고정이 된다. 두뇌 기능이 발달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환경적 자극을 주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아이들에게 있어 책읽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두번째,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의 단락에선 독서교육에 있어 부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다보면 책을 많이 빌리는 가족을 보게 된다. 1인당 대출권수가 5권인 우리 도서관의 경우 4인 가족은 총 20권의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권 모두 어린이 책만 빌리는 가정을 볼 때면 약간 씁쓸한 마음이 생긴다. 물론 부모님들은 서점에서 책을 사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아이들 책만 잔뜩 빌려가는 분들은 아이들에게만 책읽기를 강요하는 잘못된 독서교육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까지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텔레비전을 좋아하며, 교수의 자녀 중에는 교수가 많은 것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지고 놀거나 책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저자는 “만약 자신의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부모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 조성하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갖추어 놓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총 대출권수 20권 중에 18권은 아이들 책을, 2권 정도는 부모님이 볼 책으로 빌려가는 것이 어떨까?

세 번째 “베갯머리에서 읽어주는 책은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준다”라는 내용이다. 어릴 적 본 외화에서는, 잠자기 전 항상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키스를 하곤 했다. 약간 우리 정서와는 다르지만, 어릴 때 할머니나 삼촌이 잠들기 전 베갯머리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연구에 의하면 베갯머리 책 읽기 경험이 있는 4세 아이들은 읽기와 어휘력, 문장 이해력이 증진되어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으려 했고, 결국 혼자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고 하였다. 이후 취침 전에는 항상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되었고,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는 등 어휘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아빠가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이 된다고 한다. 주말 도서관 어린이실에는 여자 9명이라면 남자 1명 정도인 분포를 보인다. 물론 조기축구회, 낚시 야구 등의 도서관보다 재미있는 다양한 일들이 기다려졌지만 아이의 미래와 자기 계발을 위해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 없이 아이와 둘이서 도서관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분만 소개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 책에는 어린이의 독서습관, 책 읽는 환경조성, 도서관활용법, 연령별로 보는 책읽기 요령, 대(多)독 정(精)독, 독후감 쓰는 법, 집중력 키우는 법 등에 대한 저자의 사서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라”라는 말처럼, 무조건 책을 많이 시주고 빌려주기보다는 우선 부모가 책 읽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제목이 욕에 티어서 아쉬운 『독서몰입법』에 대한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친다.

- 장유도서관 1층 어린이실 이종 열







만나고 싶었어요

따뜻한 시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선생님!!

『멋지다 씩은 떡』 & 『잘 한다 오광명』의 작가 송언 선생님 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 '김해'의 '장유'에 있는 '장유도서관' 사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도 만나게 되어 반갑구요. 9월 '독서의달'을 맞아 저희 도서관까지 기쁜 걸음 해 주신다고 하셔서 더더욱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만큼이나 선생님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 e-mail 인터뷰 형식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시면서 작가입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억수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그만 두거나 내가 잠시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동화작가에게 초등학교 교사만큼 어울리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비명이지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니면 동화쓰기 어렵다는 건데 그나마 방학이 있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정말 바쁠 때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 급한 대로 쓰고 있지만요.

**글을 통해 상상해보았던 선생님의 이미지가 실제 책 그림에 나타난 모습과 꼭 닮아서 놀라웠습니다. 살짝 호기심을 유발하는 콧수염과 푸근한 눈썹의 너털웃음 등 친근하고 따뜻한 선생님의 '외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무기'로 활용되나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워합니다. 학부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는 학부모도 의외로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부모가 아무리 특별하게 생겼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남들이 자기 부모님을 손가락질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교실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내는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시간보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감사준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콧수염으로 인해 아이들과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품이 어른보다 훨씬 크고 넉넉하니까요.

**익살맞고 정겨운 교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선생님 책의 삽화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글을 쓰시고 책을 만드실 때 그림을 그리시는 선생**

**님은 얼마큼 의논을 하시는지요?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화가에게 직접 무엇을 요구하거나 화가의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화작가나 화가나 같은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배려는 합니다.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니 제가 다니는 학교에 꼭 한번 와 달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둘러보고 요즘 아이들도 직접 만나보고 하면 캐릭터를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제가 제안하는 건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출판사 편집자가 살짝 끼어듭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선생님을 '송언 선생님'과 똑같이 해보는 게 재미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화가가 필쩍 뛰며 좋아합니다. 제가 외모에서 한 캐릭터 허거든요. 화가들이 그러는데 저를 보면 그림이 단박 나온대요. 그래서 좋다는 거요. 그러다보니 그게 아주 유행이 되어서, 위의 두 책뿐 아니라, 『김 구천구백』에선 최정인 화가가 『마법사 똥맨』에선 김유대 화가가 동화 속의 선생님을 저와 똑같이 그려서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을 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가 있으신지요?**

지금도 역사 이야기나 역사 동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라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단군의 조선』이란 우리 역사이야기를 책으로 냈고 그 전에는 『고구려』, 『아, 발해』 등을 썼으며, 역사동화로는 『바리왕자』가 있습니다.

글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나 역사 동화 그리고 현실의 아이들과 소통을 꿈꾸는 『멋지다 씩은 떡』 종류의 동화 쓰기 자체 글쓰기의 두 축이라고 봐야겠지요.

**선생님이 실감하시는 '인기'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께 붙인 별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몇 년째 잊지 않고 찾아주는 열성적인 팬클럽 제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이들과 친구처럼 뽕을 치며 놀아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공교육의 마당인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

낸다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별명은 '150살, 도사, 할아버지 선생님' 그리고 '오대산 산신령 친구' 정도인데, 150살 도사나 오대산 산신령 친구의 경지에서 아이들과 놀기 때문에 다행히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마음처럼 쉽지 않아 힘드셨거나 마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곤란했던 '실례' 경험도 있으신지요?**

아이들을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되도록 선생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서로 편하게든요. 선생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면 절대로, 절대로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친구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고리타분한 선생님과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비로소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이들이 되도록 제 책을 유쾌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책을 읽고 나서 기분도 조금 유쾌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나친 욕심인 줄 알면서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 또 다른 책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께 도서관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도서관 구경하기 힘들었지요.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도 반납한 채 학교도서관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서 선생님이 바쁠 때는 대신 대출업무를 봐주기도 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있는 괜찮은 책들을 모조리 독파하는 게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반역년도 못 읽고 졸업했지요.

지금도 도서관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책을 쓰는 작가가 도서관을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작은 지역도서관을 꾸려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남은 꿈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선생님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 · 언 · 선 · 생 · 님 · 은 · 요 ~ ~



1956년 태어나셨구요.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잠시 수년간 동화와 소설을 쓰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복직하시고 현재는 서울 중광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글도 쓰고 계십니다.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문단에 나오셨다는 말은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쓰신 역사책과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진짜 옛날이야기 같은 옛이야기 책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고구려』(우리교육, 1996), 『바리왕자』(사계절출판, 2001),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한겨레출판, 2001), 『꽃들이 들려준 옛 이야기』(한겨레출판, 2001), 『아, 발해』(우리교육, 2000), 『피보막동이』(한겨레출판, 2000), 『아기장수 우뚜리』(한겨레출판, 2000), 『사마장자 우마장자』(한겨레출판, 2003), 『단군의 조선』(우리교육, 2007), 『흑부리 할아버지』(국민서관, 2008), 『저승사자

가 된 강림도령』(한림출판사, 2008) 등 그 외에도 다른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신 책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송언 선생님 작품인 줄 모르고 책만 본 친구들도 많이 있죠? 누가 누가 어떤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노인의 인권을 다룬 『힘둥이네 할머니』(현암사, 2003)와 큰 소리꾼 박동진 아저씨의 이야기를 쓴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여』(우리교육, 2007), 위인전과는 또 다른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모두가 내 아들이고 딸이야』(우리교육, 2006)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들은 선생님의 낮은 시선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함께 사는 세상'이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반'에도 꼭 한명쯤 있는 친구와 너무나 닮은 주인공들이 나와 무척 반갑고 더욱 재미있는 『마법사 똥맨』(창비, 2008), 『잘 한다 오광명』(문학동네어린이, 2008), 『멋지다 씩은 떡』(문학동네어린이, 2007), 『김구천구백』(파랑새, 2007), 『조주먹과 살살이 방귀』(파랑새, 2007), 『슬픈 종소리』(사계절출판, 2004), 『왕언니 망고』(푸른나무, 2002)와 같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실제 가르쳤던 선생님 반 아이들을 모델로 삼고 책을 쓰신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똥맨, '씩은 떡', 김구천구백이, '망고' 등의 별명이 붙여진 사연도 알 수 있고, 선생님께서 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억하시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일기인 『엄마, 우리 교실에 놀러오세요』(한겨레출판, 2004)와 2학년 학급일기 『선생님, 재가 그랬어요』(한겨레출판, 2003)라는 책도 친구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아이들 마음은 생각해보시지도 않고 먼저 하고 싶으신 말씀만 잔뜩 하는 선생님들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송언 선생님은 어린이 친구들이랑 같이 장난도 치고, 비밀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입니다. 앞서 소개되지 않은 책 중에서도 『내일은 맑을거야』(우리교육, 1997), 『아빠, 꽃밭만들러 가요』(사계절출판사, 1999), 『흰 사슴을 타고 간 여행』(한겨레출판, 2002), 『오늘 재수 똥 튀겼네』(사계절 2002) 등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십니다.





### 엄마표 요리나라 이야기 - "고구마 피자" 만들기

저희 학교는 여름방학 때 '친구사랑 체험'이라는 재미있는 과제가 있어 저희 집에 4명의 친구를 초대해서 2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때 고구마 피자를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더군요. 피자는 주로 시켜 먹는 음식인 줄만 알던 아이들이 아재와 햄을 직접 썰고 치즈를 뿌려서 만들어 보고 먹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흔한 음식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를 소개해드립니다.



#### ◎ 엄마표 사랑 듬뿍 담긴 재료

1. 고구마: 1개
2. 피자빵가루: 1봉지
3. 피자치즈: 100g
4. 피망: 1개
5. 양파: 반쪽
6. 양송이버섯: 5개
7. 비엔나소시지: 5개
8. 고추장 1스푼, 케첩 1스푼
9. 스파게티소스 2스푼, 올리브유 약간



#### ◎ 엄마표 요리순서

1. 찢은 고구마에 물엿을 약간 넣고 으개어 놓습니다.
2. 양파는 굵게 다져서 고추장 1스푼과 케첩 1스푼을 넣고 올리브유로 볶아 둡니다.
3. 피자빵 가루는 펄질 정도로 반죽해 둡니다.
4. 피망과 양송이버섯, 비엔나소시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5. 오븐용 피자틀이나 두꺼운 전골냄비에 버터를 바르고 준비해 둔 피자반죽을 용기크기만큼 펴 둡니다.
6. 볶아 둔 양파소스를 수저로 펴고, 그 위에 스파게티 소스를 덧바르고 으개놓은 고구마를 가장자리에 돌려 놓습니다.
7. 햄, 피망, 양송이버섯을 그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피자치즈가루를 뿌려서 10~15분 정도 약불에서 가열하면 맛있는 고구마피자가 완성됩니다.

#### ◎ 엄마표 알뜰 팁

똑같은 요령으로 식빵 위에 얹어 전자렌지에 익히는 것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취향에 맞춰 새우나 오징어, 감자 불고기를 넣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 ◎ 엄마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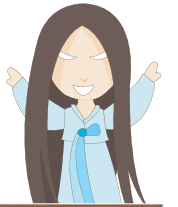
토요일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맛있는 냄새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함께 아이를 반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을은 먹을거리가 풍부한 계절이죠? 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과일과 농산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느 철에 고구마가 나고, 땅콩이 나고, 배가 열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철인 고구마를 썰어 먹고, 남은 고구마로 피자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임미연 (참새빵맛간 요리사)



### 삼도리 이야기



## 처 · 녀 · 귀 · 신 · 물 · 리 · 치 · 다.

The comic strip tells a story about a girl named Samdori who is being bullied by a girl named Miyeon. Samdori's mother is worried and asks her to go to school. Miyeon is a ghost who haunts Samdori. The story ends with Samdori's mother finding out about the ghost and taking action.

글\_ 어영수 / 그림\_ 이종형(경남에니메이션고 3)



### 우리 동네 옛 이야기

## 장유 무계리의 고인돌을 아시나요?

우리 고장 장유 무계리에는 김해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있어요. 길이 6.1m, 넓이 2.9m, 두께 1.3m 로서 여러 사람이 올라가 누울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적해요. '놀면' 또는 '지석묘'라고도 하는 고인돌은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던 청동기 시대 전후의 재단이나 무덤이었다고 해요. 무계리 고인돌은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깨뜨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또 '광석'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 넓고 큰 고인돌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무계리 고인돌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고인돌이 하나 있었는데 1962년에 발굴하였을 때 돌칼 1점, 돌화살촉 8점, 대롱옥 3점, 청동제 화살촉 3점, 붉은 간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무계리지석묘'라는 안내판이 서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어요. 고인돌 주변에 단을 쌓고 잔디를 심어 놓았으며 수명이 수백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서 친구들끼리 쉴 수도 있고 이야기하기도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고인돌의 귀족살을 들어보세요!

이병관 (전 장유도서관 관장)





### 1. 『우리 가족입니다』를 읽고

김해의 책 선정도서인 『우리 가족입니다』를 읽었습니다. 차매에 걸린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슬퍼요. 가족 이니깐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고 잘 받아준 모습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해야겠어요.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요.  
또 건강하세요!



주신영(능동초 1)

### 2. 비

비가 주룩주룩 조록조록  
왔다갔다.  
비 많이 온다. 쫄딱 망했다.  
주룩주룩 내리던 비 안온다 다행이다.



강민주(철산초 4)

비가 주룩주룩 바람도 같이  
말리던 빨래 축축하게 다 젖고  
식물들 물을 먹고  
나는 시원한 바람을 맞네

아~비 더울때는 물벼락 처럼 쏟아졌으면  
아~비 추울때는 안왔으면  
제발 제발

창문 밖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시끄러 시끄러  
물방울들은 시골시골  
심심하던 바람도  
말뽕을 부리지 않나

말뽕을 불러온 구름  
알미워 알미워  
바람이 많이 불었으면  
구름이 말뽕 부린 주도자

하지만 식물들이 쑥쑥 자라서  
기분 좋고 시원해서 기분이 좋네.

### 3. 구름은 변신쟁이

구름은 변신쟁이  
모양도  
이름도  
가지까지



백서연(주석초 3)

구름은 변신쟁이  
이랬다  
저랬다  
모양을 마음대로

구름은 변신쟁이  
코뿔소  
토끼  
생쥐  
가지까지 모양이 바뀌지

구름은  
구름은  
하늘의 찰흙



#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 4. 올림픽을 보며

오늘까지 벌써 올림픽이 개막된 지 나흘째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 3위이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아주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이다.



김현(계동초 6)

그런데 TV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분명 양궁에서 세계 최강이다.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6연패를 달성하고,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도 3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모두들 양궁이 '호자 종목'이라면서 금메달을 석권하는 점을 당연시하는 듯 했다. 김수녕 해설위원은 이런 상황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 특히 나는 은메달을 땀으로도 불구하고 울었던 왕기춘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은메달은 세계 2위라는 뜻이다. 금메달을 못 땀어도 다시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열심히 해서 4년 뒤 런던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면 된다. 왕기춘 선수의 나이는 겨우 20살이다. 아직 젊고 혈기가 넘치는데, 20살이니까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왜 울었던 걸까?

게다가 좌송하다는 말은 왜 하는 걸까?

외국에서는 메달을 따면 그것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라도 영웅이 된다.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당당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내가 본 신문에서는 "이기면 본전, 지면 역적"이라며 양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다.

메달을 따도 금메달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기면 본전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겨도 이긴 대접을 못 받고, 지면 역적 취급. 외국 언론들은 "한국 양궁 꺾을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놀라워하는데...

물론 이런 기대가 선수들에게 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족하는 단계는

늘 1등이다. 그러니 1등을 하기 위해 죽을 등 살 등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메달을 딴 선수들조차도 금메달이 아니라면 영웅 대접을 하고 있지 않다.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은메달이나 동메달, 혹은 안타깝게 탈락한 선수들 역시 대한민국의 1등 선수들이다. 모두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선수촌에서부터 선발전을 치렀다. 그리고 엄청난 경쟁률로 선발된 그 순간, 이미 그 선수는 1등이다. 기억하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친 선수들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4년 뒤 기적을 이뤄낼 선수들이라는 것을.

### 5. 『우동 한 그릇』을 읽고

일본의 어느 작은 도시에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찾아오는 손님 과 주인의 이야기이다.



김성민(계동초 6)

12월 31일 늦은 시간 가난한 어머니와 두 아들은 북해정을 찾아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조심스레 주문한다. 하지만 주인 부부는 그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우동 한 그릇 안에 반인분을 추가해서 그들에게 내놓는다. 그렇게 그 어머니와 아들이 3년을 찾아오고 주인 부부는 12월 31일에 그들이 앉았던 좌석을 비워두고는 기다린다.

참 낯선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손님이 온다면 친절히 대하는 가게 주인이 과연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 6. 삼겹살 먹은 날

오늘 통째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찬영이 형이랑 창민이 형이랑 준영이 창준이랑 같이 갔다. 엄마들도 갔다. 밥을 두 그릇 먹고 고기는 상추에 싸서 먹었다. 너무 행복했다. 또 양파랑 버섯이랑 미늘하고 싸먹어서 맛이 더 좋았다. 식당의 놀이방에서도 놀았다. 재미있었다.



정재현(능동초 1)

그리고 엄마들은 커피를 마셨다. 정말 좋겠다. 나도 어른이 되면 커피를 마시고 싶다.





### 7. 책임는 가족

오늘 우리가 '책임는 가족'으로 뽑혔다. 그래서 아주 기뻐다. 현판과 인증서를 받아서 기뻐다. 도서관에서 과자도 먹으니까 행복했다. 그리고 책도 빌렸다. 엄마가 이야기 할 때 들었다. 아빠랑 엄마도 뿌듯하다고 하신다. 앞으로는 책을 많이 읽겠다.



이한경(수곡초 2)

### 8. 나팔꽃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니 나팔꽃이 일곱송이가 피어있었다. 참 예쁘다. 예전에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새싹이 나더니 이제는 예쁜 나팔꽃이 되었다. 나도 선생님처럼 꽃을 잘 가꾸고 싶다.



류정민(계동초 1)

### 9. 『전쟁과 소년』을 읽고

6월 25일은 6.25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난 평소 전쟁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고 지난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과 소년』을 읽고 전쟁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담선아와 필동이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담선아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 피난을 내려오지만 힘이 없어 아기도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고아가 된 담선아는 겨우 스님을 만나 필동아네 집에 맡겨진다. 필동이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을 따르지 못하고 할머니집에 남았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후에는 아기를 보살렸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폭격소리로 두려움에 떨었다. 필동아네 집에 맡겨진 담선아와 즐겁게 지내지만 담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된다.

전쟁은 이산가족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연도 파괴시키고 문화유산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전쟁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도 휴전 중이다. 우리 6.25 전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신식무기로 인해 더 심각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담선이 필동아만이 아니라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사랑하자.



김한술(월산초 5)

### 10. 간도는 우리 땅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데 독도와 같이 분명히 우리 땅인 간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1712년 5월 15일 청나라 관리 목극동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선으로 간도를 조선땅임을 인정한다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1905년 9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9년 9월 9일 청과 협상을 한다. '만주땅에 철도공사권을 주면 간도를 청에게 넘기겠다'라는 내용이다. 우리 조상들이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해 여러 곳은 노력과 싸움을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된 현실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간도 땅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931년 일본군이 우리가 간도를 우리땅이라 할 수 있는 증거인 '백두산 정계비'를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이후 우리 분단국가 상태로 영토주장을 하지 못해 간도땅을 잃고 말았다. 국제법을 살펴보면 100년동안 실호 지배하면 영원한 주인이 된다고 되어있다. 2009년 9월 9일, 우리 간도땅을 잃을 것인가.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는 목에 핏줄이 서도록 우리땅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간도는 우리 땅이란 현실을 아주 잊은 것 같다. 지난 날,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를 헛된 일로 만든 우리... 지난 99년 동안 우리 그 조상들의 노력과 간도 땅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우리 조상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독도와 간도는 틀림 없는 우리땅이다. 우리 정확한 증거를 1년 내에 최대한 빨리 찾아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9일, 과연 간도는 누구의 땅이 되어있을 것인가.



이유진(덕정초 5)

### 11. 환경올림픽 람사르

이번 10번째로 개최하는 람사르 총회는 창원에서 개최한다. 람사르 협약은 처음엔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국제 환경 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유는 물새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에 가입을 했다. 습지는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가 있다. 그것은 지구면적의 6% 밖에 차지 못한다고 한다.

습지는 태풍, 해일, 기상재해 방지, 홍수나 가뭄 방지, 동식물의 서식처, 온실가스 저장고 역할, 바이오 연료 생산가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습지는 공기가 들어갈 빈 공간이 없어 옛날 신석기 시대의 배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습지를 파괴하고 공장을 세우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나쁜 사람들 안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저러든 습지를 파괴하고 다른 공장 같은 것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것을 끄떡하게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번에 습지에 대해 알게 된 나로서는 끄떡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습지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습지는 정말 소중한다고 알려주고 싶다.



김지호(능동초 5)

### 12. 운동회 총연습 한 날

휴~우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실로 들어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나~무 더워서 얼음물 같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었다. 우리들은 무엇을 했다면 릴레이에 공 위로 전달하기를 하였다. 게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나~무 더운 햇살이 문제이다. 만약에 내 동생을 데려왔다면 내 동생은 마른 쥐포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이선주(덕정초 2)

### 13. 우리 동생 눈

우리 동생 눈은 뚱글뚱글 방글방글  
우리 동생 눈은 왕눈이예요  
예전보다 더 눈이 커졌어요  
웃을 때는 너무나 귀여워요  
슬플 때는 눈이 초롱초롱  
눈이 멋져요  
화가 날때는 무서워요  
흐시 흐시! 무서워요  
우리 동생 지금 눈은  
큼직큼직 동글동글  
귀여운 우리동생 눈  
정말정말 눈이 커요  
예전부터 생선 눈알을 많이 먹어서  
그러가예요 지금은 안먹어요  
무엇을 안먹냐구요? 생선 눈알요  
그래도 예전보다 눈이 커졌어요  
내 눈보다 더 커요



최지성(삼문초 2)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장유도서관 홈페이지 '포포포' 방에 들려주제와분량에 관계없는 자유로운 글을 남겨주세요.





# 내가 만드는 그림책

★ 색칠해 보아요 ★



점\_ 피터 레이놀즈 글·그림, 문학동네어린이



## ★ 도서관의 여름 이야기 ★



• 동극 "우리 가족입니다" / 07.25  
 Re : 2008년 '김해의 책 보조도서관'이 된 『우리 가족입니다』의 동극이었다.  
 무대 가까이에서 실제로 연극을 본 것도, 가족들과 함께 본 것도 너무 좋았어!



• 북스타트 2기 프로그램 / 07.03 ~ 08.21  
 Re : 아가는 책을 좋아하는데! 아가들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나도 어렸을 때 요런 거 했으면 좋았겠다!



• 가족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그림책 SHOW / 08.07 ~ 08.28  
 Re : 늦은 시간, 불을 다 끄고 그림책을 보는데 영화보다 재미있더라!  
 아직 우리 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은 특히 재미있었어. 엄마 아빠랑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어!



• 『브라보 내 인생』 원화전시회 / 08.01 ~ 08.21  
 Re : 가끔씩 원화 전시를 본 적 있지만, 이번엔 그림책이 아닌 어른들의 책에 있는 그림 전시였어. 부모님들은 내용도 무척 좋다고 하던데, 난 그림이 다소 낯설었지만 느낌은 좋더라!



• 신나는 여름 독서교실 / 08.11 ~ 08.21  
 Re : 다양한 내용의 수업들이 모두 재미있었어. 특히 이번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중국의 지도를 보고 있는 중이야!

## ★ 도서관의 가을 이야기 ★



- 개학 후, 2학기 정규프로그램 안내
  - <가야문화를 찾아서> : 초등학교 3·4학년,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방과후 도서관학교> : 초등학교 4학년, 매 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어린이독서회> : 초등학교 6학년, 매 달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동화사랑방
  - <청소년독서회> : 중학교 1·2학년, 매 달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2시~4시, 동화사랑방
  - <북스타트데이> : 10월 30일부터 매 주 목요일(8주간), 10시 30분~11시 30분, 유아실
  - <일일도서관 체험교실> : 초등부·유아부, 각각 어린이실·유아실 신청 상담 후 운영

- '독서의 달' 행사
  - 꽃누르미 작품(압화) 전시회(9/5~9/28, 지하 1층 전시실)  
: 임현숙 선생님의 압화 15점 및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전시
  - 꽃누르미 작품(압화) 체험전(9/21, 지하 1층 전시실)  
: 참가신청한 15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족'을 소재로 하는 압화 만들어보기
  - 그림책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추억(9/18, 9/25, 3층 시청각실)  
: 성인을 대상으로 '사랑'과 '낭만'에 관련된 그림책 소개
  - 송언 선생님 초청 강연회(9/27, 3층 시청각실)  
: 『멋지다 썩은 떡』, 『잘 한다 오광명』의 저자 송언 선생님과 "나는야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주제의 강연
  - 아빠와 함께하는 북스타트(9, 7, 9/21, 9/28, 10/5 지하 1층 건강실)  
: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 책놀이 및 손유희 등의 프로그램 시연

“꽃꽃” 4호는 2009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